

2016.07.09~15

주간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신흥 조선국 베트남을 뚫어라...부산 시장개척단 파견
- ▶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 해소 논의
- ▶ SM-유니세프, 3년간 베트남 아동 음악교육 지원
- ▶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베트남공략가속화...3호점오픈
- ▶ LG이노텍베트남공장설립검토...2018년현지생산목표
- ▶ 한진해운,베트남터미널법인지분-한진에 전량매각...65%자구이행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코이카, 베트남 산업안전 지원사업 종료...현지 훈련센터 개관
- ▶ 베트남:남딘 성에 있는 인도 차이나 최대급의 섬유 공장들 이전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 브랜드력 1위는 비나밀크, 포브스
- ▶ 베트남 신뢰성 높은 상업 은행 톱 10, Vietinbank, BIDV 등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베트남비관세장벽대응채널구축된다
- ▶ 베트남: 2016 년 면화 수입 19% 증가, 수출 310 억 달러 목표
- ▶ 호치민시와 동나이 성을 잇는 캣라이 교 건설, 5.7 조 VND 투자
- ▶ 2015 년 호텔 서비스 수입 전년 대비 4 할 증가, 국내 고객 급증
- ▶ 룡탄 공항 착공 2019 년, 베트남 부총리가 지시, 설계 안은 국민의 의견 청취
- ▶ 베트남 카카오 콩 수출 대국 목표, 재배 확대 시도
- ▶ 베트남 정부, Vicem 주식 매각, 제 4 분기에 IPO
- ▶ 베트남 정부, 국산 차 모델 선정에 초점, 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
- ▶ 별장/도시주택 수요 증가
- ▶ 투자자본이전 시 세금활동 감사 강화



대한상공회의소

- ▶ 베트남 국채 1,800 조 동 육박 채무 청산 의무 급속도로 증가
- ▶ 6 가지 농업 분야의 투자경영 조건 규정
-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 ▶ 차량 점검 서비스, 교통 운송 서비스 아니다
- ▶ 칸호아성, 2 억 8 천만 달러 이상 수출흑자
- ▶ 호치민시 공업단지 평균 임대료 115USD/m²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신흥 조선국 베트남을 뚫어라...부산 시장개척단 파견

- 부산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신흥 조선국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하이퐁, 다낭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함
 -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원광밸브 등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14개사가 참가함
 - 베트남 시장개척단은 부산시와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조선기자재 전문수출상사에 의뢰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둘만한 바이어를 섭외해 1대1 수출상담회를 연음
 - 특히 베트남 하이퐁, 다낭 남쭈조선소 등 3개 조선소를 사전에 섭외해 현지 현장방문과 수출상담회, 벤더등록 설명회 등을 열어 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베트남 진출을 돕음
 - 이번 시장개척단은 부산시와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베트남 조선소의 구매 희망품목을 사전 조사한 뒤 신청업체와 매칭해 14개 업체를 선정함
 - 부산시는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항공료 50%와 현지차량, 상담회 개최비 등을 지원함
 - 베트남은 최근 들어 조선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조선기자재 조달 및 해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지 생산량 부족으로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수출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됨
- * 출처: Yonhapnews, 07.14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 해소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기술표준원(STAMEQ)과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함



- 지난해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 열린 위원회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함
- 특히 산업부는 베트남에서 인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베트남에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내 한 기업이 베트남에서 철강 제품 사전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공장심사를 신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부는 또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요청함
- 지난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가 상호 인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협력 성과를 내고 있음
- 산업부는 "베트남은 지난 수년간 5~6%의 성장을 하며 '제2의 중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번 위원회는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함

* 출처: Yonhapnews, 07.14

SM-유니세프, 3년간 베트남 아동 음악교육 지원

- SM 엔터테인먼트가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베트남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한다. SM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니세프 베트남사무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3자 간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베트남 아동의 음악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고 12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SM은 유니세프 베트남사무소와 함께 하노이, 다낭, 콘툼 등 베트남 3개 지역에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교육, 음악 기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이를 통해 5천여 명의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 총 1만여 명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SM의 설명임
- 협약식에는 김영민 SM 총괄대표, 유소프 아브델제릴 유니세프 베트남사무소 대표와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에프엑스 루나와 NCT127의 재현·태용 등 SM 가수들이 참석함
- 김영민 SM 총괄대표는 "SM이 팬들과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문화를 통해 꿈을 키워주는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아동들이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표현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SM은 12일 루나와 함께 다낭의 통합교육센터, 문화예술대학 등을 방문해 음악 교육을 받는 아동들과 만날 예정임

* 출처: Yonhapnews, 07.12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베트남공략가속화...3호점오픈

○ LS네트웍스의 스포츠브랜드 프로스펙스가 베트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프로스펙스는 베트남 하노이 서부 대형쇼핑몰 더가든(The Garden)점 오픈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힘

○ 지난 6월 1일 오픈한 하노이 동부 타임시티몰(Times City Mall)점과 지난 4월 오픈한 북부의 롯데 센터(Lotte Center)점에 이어 3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하노이 중심 상권에 자리 잡음

○ 프로스펙스는 브랜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베트남에서 Anta, Xtep 등 중국 스포츠 브랜드를 전개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온 현지 기업과 조인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택함

○ 지난 4일 LS네트웍스 이경범 대표이사는 베트남 프로스펙스 3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베트남 현지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시장 공략의 중요성 강조함

○ 이경범 대표는 "프로스펙스가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된 현지화가 필요하다"며 "베트남 현실에 맞는 상품과 가격전략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라"고 당부함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6.68%였고(세계경제성장률 2.6%), 2016년에는 6.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프로스펙스는 유리한 브랜드 포지션을 선점하고, 안정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임

○ 베트남 현지 기업 담당자에 따르면, "(프로스펙스의)우수한 소재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베트남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다"며 "워킹화의 독창적인 컨셉과 우수한 기능성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 LS 네트워크의 프로스펙스 담당자는 “이번 베트남 진출은 프로스펙스가 해외 매장 진출과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워킹화 시장을 선도해온 프로스펙스의 가능성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포부를 밝힘

* 출처: Etoday.co.kr, 07.14

LG이노텍베트남공장설립검토...2018년 현지생산목표

- 제조사들의 베트남 공장 설립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LG 이노텍도 주요 고객사의 요구에 발맞춰 베트남 공장 설립을 추진함
- 13일 LG 이노텍은 한국거래소의 베트남 공장 추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베트남 공장 설립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함
-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LG 이노텍에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 카메라 모듈 공장 설립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이노텍은 2018년 생산을 목표로 베트남 하이퐁에 공장 신설을 준비중임
- LG 이노텍은 하반기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는 듀얼카메라가 애플의 신작에 출시될 것으로 점쳐지며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애플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에 카메라 모듈 공장을 신설하면 G 이노텍은 한동안 애플의 전략 공급사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1980~90년대 우리나라를 연상케 하는 곳으로 인건비는 중국과 비교해 6배 정도 저렴하지만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음
- 더욱이 9000만명에 달하는 베트남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가 20~30대 이하 젊은 층이어서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커 삼성, LG 등의 국내 제조사들이 활발하게 진출함
-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과 타이응웬성에 대규모 휴대전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음
- 또한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 동부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서 소비자가전(CE) 복합단지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함
-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해외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도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LG 전자도 지난해 3월 LG 전자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을 구축 TV, 에어컨, 휴대전화, IVI 등을 생산하고 있음
- LG 디스플레이 또한 하이퐁시에 신규모듈 공장을 설립해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움
- LG 이노텍이 하이퐁시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 등을 줄여 생산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LG 전자 현지 물량의 빠른 대응이 가능해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법인세 혜택 등을 활용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

* 출처: Etoday.co.kr, 07.13

한진해운, 베트남 터미널 법인 지분 한진에 전량 매각... 65% 자구 이행

터미널 지분 21.33% 약 230억에 매각... 4112억 자구 계획 중 2677억원 확보

- 한진해운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탄깡까이맵 터미널 법인 지분 21.33% 전량을 약 23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
- 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지분 전량을 (주)한진이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함
- 탄깡까이맵 터미널은 베트남 남부 카이맵 강 유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터미널로 연간 약 103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 이로써 한진해운은 지난 4월말 발표한 4112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 계획 중 상표권, 벌크선, H-Line 지분, 중국 자회사 지분 및 런던사옥 매각 등을 통해 1744억 원을 확보함
- 이외에도 동경 사옥 매각, 아시아 역내 일부 노선 영업권 양도와 이번 베트남 터미널 법인 지분 매각 등을 통해 933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2677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게 됨
- 다만 용선료, 컨테이너 임차료 등 당장 급한불을 끄기 위한 현금 확보는 됐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1조원 마련을 위해서는 그룹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한진해운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말함

* 출처: Etoday.co.kr, 07.13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코이카, 베트남 산업안전 지원사업 종료...현지 훈련센터 개관

-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펼쳐온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사업'이 14일(현지시간) 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 개관을 계기로 최종 마무리됨
- 하노이 인근 선파이시(市) 지역에 있는 훈련센터는 연면적 1만 8천 155㎡(5천 500평)의 규모로, 13개 안전보건 체험교육시설과 33종의 실험용 산업 장비를 갖추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이 센터를 리모델링했고, KOIC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40만 달러(약 38억 9천 640만 원)를 투입해 센터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습장비, 교육과정 개발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 또 교육을 담당할 현지 강사를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고, 전문가를 현지로 파견해 운영 노하우를 전수함
- KOICA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제조·건설업 등 2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도 나날이 증가했지만 매년 6천여 건의 산업재해로 근로자 상해 및 사망 사고, 건축 및 광산 분야에서의 발병 사례 또한 늘어나는 추세임
- 이에 베트남은 2011~2015년 산재 사고 및 직업병 5% 감소를 목표로 제조·건설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최성호 KOICA 사업개발 이사는 "이번 사업은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베트남 현지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함
- 이날 열린 센터 개관식에는 따오 응옥 쯙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이혁 주베트남 대사, 장재운 KOICA 베트남 사무소장,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함
- 따오 응옥 쯙 장관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준 양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훈련센터가 앞으로 베트남 산업재해 예방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베트남 사업자와 근로자의 산업재해 의식이 더욱 제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함



○ 이혁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으로 베트남 사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출처: Yonhapnews, 07.14

베트남:남딘 성에 있는 인도 차이나 최대급의 섬유 공장들 이전

○ 남딘 섬유 공장으로 알려진 프랑스 통치 시대의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동종 최대 규모의 공장인 Nam Dinh Textile and Garment Corporation(Natexco)가 곧 옮기가고 그 터에는 신도시가 개발됨

○ Natexco 는 Nghia Hung 구의 Hoa Xa 공단으로 옮겨가고, 공장 터는 4100 억 베트남·동을 투자 도시 개발이될 예정임

○ 24.8 헥타르의 프로젝트는 무역 센터, 아파트, 학교, 공원, 녹지, 스포츠 센터 등을 포함할 계획임

○ 그러나 공장에서 일하여 온 사람들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 공장은 남딘 성의 자랑이었던 것으로 이전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 이 공장은 프랑스 통치 시대에 한 때, 인도차이나 지역의 동종 공장으로는 최대가 된 바 있었다. 그 지위는 성의 사회 경제 개발의 영향을 받아 변해 옴

○ 1924년에는 6000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고 이 숫자는 1985년에 13000명 가까이 이르렀다. 1980년대 초반, 남딘 시는 평균 각 가정에서 한명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계산임

○ 많은 사람들이 이 낡은 공장의 일부를 남딘 섬유 산업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장은 너무 낡아 설비도 구식이어서 환경 보호 목적으로 공장을 주택지에서 떨어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대신 그곳에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음

*출처: Vinahanin.com, 07.09



◆ 베트남기업 동향

베트남 브랜드력 1위는 비나밀크, 포브스

- 베트남 국내에서 가장 브랜드력이 높은 기업은 유제품 업계의 최대인 비나밀크(Vinamilk)로 포브스 베트남은 최근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40 개"를 선출, 랭킹에서 비나밀크가 정상에 오름
- 300 개사 중에서 선정 리스트에 오른 40 개 브랜드 가치는 합계 50 억달러에 이른다고 하고 있음
- 40 개의 내역은 일반 소비자의 일상 용품 등을 다루는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금융 관계는 20~10%임
- 톱인 비나밀크의 브랜드 가치는 15 억 2000 만달러로 다른 기업을 압도. 2 위는 국내 52%의 전화망 점유율을 가지는 베트남(Viettel)로 브랜드 가치는 7 억 5000 만달러이임
- 3 위는 민간 부동산 그룹, 빈그룹(Vingroup)으로 2 억 7900 만달러 다음 국영 맥주 회사 사이공 맥주, 알코올 음료 총공사(약칭:SABECO, 2 억 4700 만달러), FPT 그룹(1 억 7100 만달러), 베트남 공장 은행(Vietinbank, 1 억 3500 만달러)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나란히 들음
- 포브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 경제로 이행한 1986 년 도이모이 이후에 설립됐다. 평가 방법은 브랜드가 기업 결산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계산함
- 다만 KYMDAN 과 Eurowindow 등 일부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도 있음
- 마찬가지로 숫자가 공표되지 않은 다수의 국영 기업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으며 이 밖 50% 이상의 외자 유명 기업도 제외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7.09

베트남 신뢰성 높은 상업 은행 톱 10, Vietinbank, BIDV 등

- 베트남 평가 리포트사(Vietnam Report)는 6 일 2016 년의 신뢰성 높은 상업 은행 톱 10 을 발표함



○ 이 랭킹은 재무 능력이나 미디어의 신뢰성, 제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하여 각 상업 은행을 등급화한 것으로 6 월에 조사한 자본금이나 경상 수익 성장률, 이익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 됨

○ 베트남 상업 은행 톱 10 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 은행(Vietinbank)

◇ 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BIDV)

◇ 베트남 컴 은행(Vietcombank)

◇ 아시아 광고 은행(Asia Commercial Bank)

◇ 테크 컴 은행(Techcombank)

◇ 군대 상업 은행(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

◇ 사콤발크(Sacombank)

◇ TP 은행(TPBank)

◇ 사이공 하노이 상업 주식 은행(Saigon-Hanoi Commercial Joint Stock Bank)

◇ 사이공 상업 은행(Saigon Commercial Bank=SCB)

*출처: Vinahanin.com, 07.12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비관세장벽 대응채널 구축된다

제 1 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개최

○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 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기술표준원 (STAMEQ)과 제 1 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TBT 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함



-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양국은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함
- 이날 우리 정부는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측에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인증시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주고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휴대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또 사전품질인증이 지연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기업에 대한 조속히 공장실사를 촉구함
- 국표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수년간 5~6%의 성장을 하며 ‘빅스트 차이나’라는 평가를 받는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힘

*출처: Etoday.co.kr, 07.14

베트남: 2016년 면화 수입 19% 증가, 수출 310억 달러 목표

- 세계 제 5 위의 의류 수출 국가인 베트남은 올해 120 만톤의 면화를 수입한다고 7월 6일 섬유 산업계의 정보통이 밝힘
- 2015 년 대비 19% 늘어난다. 이것은 섬유 산업의 면화의 수요 급증에 걸맞은 움직임으로 극히 미미한 움직임의 국내 공급은 전혀 늘지 않음
-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다음 인도 브라질 호주로 이어진다고 베트남 면화 방적 협회 부회장 Nguyen Son 씨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함
- 베트남 상공부에 따르면 휴대 전화에 이어베트남의 외화 벌이 산업인 섬유 제품 수출은 올해 36% 증가의 310 억 미국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Vinahanin.com, 07.15

호치민시와 동나이 성을 잇는 캣라이 교 건설, 5.7조 VND 투자



-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동시 2 구와 동남부 지방 동나이 성 연접을 잇는 캣라이(Cat Lai) 페리선을 대신 캣라이 다리 건설 안건을 "2020 년 호치민시 교통 운수 개발 계획 및 2020 년 이후의 비전"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주도록 총리에게 제안함
 - 캣라이 다리는 길이 4km(그 중 교량부 3.4km)으로 동시 2 구와 동나이 성 연접군을 잇음
 - 투자 총액은 5 조 7000 억 VND, 그 중 토지 수용에 드는 비용이 1 조 2250 억 VND 으로 추정됨
 - 이 교량 건설로 이 지역에서 증대하는 수송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이 지역의 교통 시스템 정비에도 연결된다고 기대되고 있음
 - 현재 캣라이·페리의 하루 이용자 수는 4 만 5000 명에 달한다. 특히 테트(설날), 명절 등 전성기에는 8 만 9 만명에 이르러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7.14

2015년 호텔 서비스 수입 전년 대비 4할 증가, 국내 고객 급증

- 미국 대형 회계 업체·손튼(Grant Thornton)이 6 일 발표한 2015 년의 베트남의 호텔 서비스업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해 호텔 서비스업의 수입은 약 150 억 USD 에 달해 전년의 107 억 5000 만 USD 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2015 년 호텔 서비스 수입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국내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50% 늘어난 5700 만명으로 급증한 점이 꼽힘
- 한편 그 해에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0.9% 늘어난 790 만명으로 증가율이 전년+4.0%에 비해 침체, 관광 총국의 예상 830 만명을 밑돌음
- 전국에 일일 평균 숙박 요금은 전년 대비 ▲ 11.3% 하락 그 중 4성급 호텔 숙박료는 전년의 87USD 에서 72.3USD 으로 동 ▲ 17.2% 하락함
- 가동률은 동 +1.2%상승, 이 중 5성급 호텔은 동+1.6%상승했다. 1실당 매출액은 2014년 59.3USD 에서 54USD 으로 ▲ 8.6% 떨어짐
- 또한 2016년 상반기에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21.3% 늘어난 470 만명에 달함



*출처: Vinahanin.com, 07.13

통탄 공항 착공 2019년, 베트남 부총리가 지시, 설계 안은 국민의 의견 청취

- 7월 9일 열린 관계 부처 및 Dong Nai 성과 대면에서 Trinh Dinh Dung 부총리는 늦어도 2019년에는 Long Thanh 국제 공항을 착공하도록 지도함
- 예정이 2021년 4월 착공에서 지도가 실현되면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착공된다. 베트남 항공 총공사(ACV) Le Manh Hung 사장에 따르면 건축 설계 공모의 1차 전형에서는 현재 14건의 응모가 있었고, 8월 18일에 전형을 실시함
- 특수하고 전문성 높은 시설이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일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하지만 이에 대한 부총리는 국가 중요 시설인 만큼 국민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하며 "국민도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인터넷에 올릴 것과 공표는 먼저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함
-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Nguyen Cao Luc 정부 사무국 부주임은 "지역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음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프로젝트의 진도를 앞당기기 위한 특수 제도나 퇴거 보상 제도에 관한 Dong Nai 성의 제안에 부총리는 지방의 절실한 요구라며 "Dong Nai 성이 제안하는 특수 제도를 실행하면 프로젝트를 조기에 시작 할 수 있음
- 늦어도 2019년 착공해야 한다.교통 인프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빨리 진행되는 편이 좋다."라고 말함

*출처: Vinahanin.com, 07.13

베트남 카카오 콩 수출 대국 목표, 재배 확대 시도

-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에서 카카오 수출 대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나라는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과 중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ACFTA) 회원국으로 경쟁 상대인 서 아프리카와 남미산 카카오 콩과 달리 관세가 들지 않는 점에서 유리함



- 카카오 콩의 소비량은 최근 10 년간 중국에서 3 배, 인도와 브라질에서 2 배로 증가했다고 베트남 인터넷이 7 일 보도함
 - 카카오 콩의 생산량은 수목의 노령화와 병충해가 원인으로 소비량을 밀치고 있다. 또 서 아프리카와 남미는 재배 기술이 낮고 질 높은 카카오 콩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 코코아 기구(ICCO)통계는 생산량이 늘지 않고 소비량이 늘면 2020 년까지 카카오가 공급 부족에 빠진다고 내다봄
 - 베트남은 2004 년~12 년까지 정부와 비정부 조직, 초콜릿 제조 회사의 협력에 따른 카카오 재배 면적이 확대. 2005 년 4270 헥타르에서 2012 년에는 6 배까지 확대됨
 - 그러나 2012~13 년에 카카오 콩 가격이 하락하고 재배 면적은 2015 년에 절반 가까이로 축소했다. 농가는 가격의 하락을 우려, 아직 재배에 주저하고 있음
 - 미국 식품 대기업의 코코아 개발 책임자는 카카오의 안정 재배에 고도의 재배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카카오 재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카카오·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CIC)를 설립했다. CIC 가 생산 확대에 성공하면 베트남이 최고 품질의 카카오를 제공하는 수출국이 될 가망이 있음
 - 베트남산 카카오는 20 13 년 파리의 초콜릿 국제 품평회"SALON DU CHOCOLAT"에서 Puratos Grand-Place Vietnam 사의 카카오 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우수 카카오로 인정 받거나, 브라질산 처럼 고품질인 점에 주목 받고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7.09

베트남 정부, Vicem주식 매각, 제4분기에 IPO

- 4 일자 베트남지 Thanh Niên 보도에 따르면 건설부는 Vicem(옛 베트남·시멘트 산업 회사의 주식)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제 4 분기에 신규 주식 공개(IPO)을 실시함
- Vicem 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4%로 회사 웹 사이트는 지난해 말 상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라며 국가 주식 보유 비율이 방출에 따른 최저 51%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함
- Vicem 은 시멘트 업체와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31 개에 출자하고 있다. 작년 총 이익은 2 조 3800 억동으로 전년부터 거의 배증함



- 일부 정보에 따르면 Vicem 주식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태국의 투자가의 일부가 취득에 관심을 나타남
- 다만 현재 시멘트가 공급 과잉이 빚어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산량 2000 만톤의 Vicem 에 대한 출자에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7.09

베트남 정부, 국산 차 모델 선정에 초점, 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

- 베트남의 계획 투자 장관은 "2030 년을 향한 발전 전략이 승인되어. 향후,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자동차 모델 선정(국산 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이 전략에서 선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계획 투자 장관은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지식이나 경험 부족 탓에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국내 시장이 작고 연간 생산량은 불과 20 만대에 그치고, 약 14 의 업체가 매우 작은 점유율을 나누어 조립만으로 일관 생산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열거함
- 베트남 정부는 과거에 적어도 3 회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승인한바 있다. 처음에는 20 년 전에 도요타·베트남의 설립으로 시작됨
- 2005 년 회사는 국산화 비율을 40~60%로 끌어올리는 것을 요청했다. 2007 년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 국내 기업은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함
- 2014 년에 새로운 전략이 승인되고 국산화 비율을 2020 년까지 30~40%로, 25 년까지 40~70%로 올리는 계획을 밝힘
- 정부로서는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업체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경영 기반의 취약한 국내 기업과 외국 직접 투자(FDI)에의 의존 체질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베트남이 자동차 산업 육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태국은 픽업 트럭에 특화 되어 발전에 성공함
- 인도는 소형차, 말레이시아는 주변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 많은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에서는 국산화 비율은 65~70%의 높은 수준이다. 태국은 80%에 달함



- 베트남은 많은 자유 무역 협정(FTA)에 참여하고 있다. ASEAN 물품 무역 협정(ATIGA)에 따르면 베트남의 자동차 관세는 2018 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임
-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 날 수 있도록 국산 차 모델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7.09

별장/도시주택 수요 증가

- 사빌즈 베트남(Savills Việt Nam)사는 최근 별장/주택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를 공표함
- 2016 년 2 분기에는 호치민시에서 총 820 개의 부동산이 매매되었으며, 이는 지난 분기에 비해 81%증가한 동시에 작년 동기 대비 110%증가한 것이라고 함
-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은 면적의 도시 주택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선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수영장, 학교, 문화 시설, 쇼핑센터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부동산 상품임
- 이전에는 호치민시의 도시 주택이 고급 아파트 한 채에 비해 3 배정도 비쌌지만, 현재는 많은 신개발 지역에서 그 차이가 1.7 배 정도로 떨어짐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별장/도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빌즈 베트남사는 호치민시의 2016 년 별장/도심 주택 수요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3% 증가할 것이며, 하노이의 경우 8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이와 같은 수요 급증 원인 중 하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계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고 전함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방콕(Bangkok), 자카르타(Jakarta)등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 도시들과 비교해봤을 때,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도심주택 공급량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이 있음



- 트로이 그리피쓰(Troy Griffiths) 사빌즈 베트남 부사장은, 투자 이윤을 놓고 평가했을 때, 도심 주택은 다른 부동산 상품을 넘어섰으며 이는 임대 시장이 보다 안정화 될 것이라는 높은 평가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투자자본이전 시 세금활동 감사 강화

- 호치민시 세금지국은 7 월 5 일 개최된 2016 년의 하반기 임무 전개미팅에서 감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세금의 손실을 최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본이전, 브랜드 판매 등이 발생한 기업인 다단계기업, 연료기업 등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검사함
- 시 세금지국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발생한 투자자본 이전, 브랜드 판매 활동들은 많은 수법들을 통해 복잡하게 일어났으며 각 기업은 계약을 맺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임원의 이름을 변경하기도 함
- 하지만 투자자본 이전 시 임원 명 변경 수속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기관과 등록증발급기관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발생된 세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투자자본 이전, 브랜드 이전 시 총 가치는 높으나 세금기관이 걷는 세금이 작거나 없는 경우도 많음
- 또 판매가를 투자가로 보고하거나 수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거래의 가치는 높으나 세금을 책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투자자본이전을 하였으나 자본을 이전한 적이 없는 것처럼 법정 대표자명 수정 수속을 밟은 기업도 있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베트남 국채 1,800조 동 육박 채무 청산 의무 급속도로 증가

- 베트남 국채 상황에 대한 재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말까지 합산한 결과 국채는 1,800 조 동, 약 800 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채 소식지 4 호에는 국채의 기준을 국내외에서 국민, 정부 또는 재무부의 그 외 자금계약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정하고 이에 따라 2014 년 말까지 정부의 채무는 1,800 조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채는 889 조 동이었던 2010 년에 비해 2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3 년까지의 총 국채는 1,500 조 동이임
- 국채는 정부의 전체 채무 중 아직까지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2014 년 말까지 합한 결과, 810 조 동 정도가 해외 대출금이었으며 1,000 조 동 이상이 국내 채무인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해야 할 점은, 국채가 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게 된 것은 2013 년부터 2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전인 2012 년에는 여전히 해외 대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보는 재무부 외무재정 관리국 부호오히엔(Võ Hữu Hiến)부 국장이 최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 채무의 55%는 베트남 동이며 16%정도가 USD, 13%가 일본 엔, 7%가 유로, 2%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그 외의 많은 국가 통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함
- 재무부의 국채 소식표에 따르면 2010 년에는 총 부채가 889 조 동 정도였으며, 그 중 530 조 동 가까이는 해외 대출 자본이었고, 359 조 동 정도가 국내 채무였던 것으로 나타남
- 2011-2012 년 기간에는 해외 대출 채무금이 각각 666 조 동, 727 조 동 이상이었으며, 국내 채무금은 각각 436 조 동, 552 조 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 년에는 226 조 동이었던 정부 보증 채무가 2014 년에는 422 조 동까지 급격하게 증가함
- 정부 채무는 2014 년 예산에 비해 211.5%에 다다랐으며, 이 수치는 2010 년에는 157.9%에 불과함
- 또한 정부의 국채 소식표는 매년 정부의 국채 지불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4 년에는 87 조 동에 불과했던 2010 년에 비해 약 199% 증가한 260 조 동의 채무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외 채무 및 채무관리국의 쩡흥령(Truong Hung Long)국장의 정보에 따르면, 2016 년에 지불한 채무는 지금까지 약 166 조 동으로, 2015 년 국채는 62.3%대로 제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에 정부는 정부의 채무 지불 계획을 승인했다. 그 중 2016 년에 60 조 동을 투자하기 위해 발행했던 정부 채권, 254 조 동의 지출을 메우기 위해 대출받은 452 조 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공적개발원조금(ODA) 우선 대출 45 조동, 채무 대출 95 조 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6가지 농업 분야의 투자경영 조건 규정

○ 최근 정부는 식물검역 및 보호, 식물 씨앗, 종 심기, 숲, 야생동물 돌보기, 가축 사육, 수산업, 식품 등 총 6 가지 농업 관련 분야에 관한 투자경영 활동 조건을 규정한 의결서 제 66/2016/ND-CP 호를 공포함

○ 의결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투자경영 활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식물 보호 약품 생산 조건(활성물질이거나 유익한 식물의 보호를 위한 약품 제외), 식물 보호에 관한 사업, 식물 검역 대상에 속한 식물 처리 기관 종사, 베트남에서 사용이 허가된 보호 식물 명단에 등록하기 위한 보호 식물 조사 시행, 식물 종자 조사 관련 서비스 경영 조건, 숲 및 야생 동물 돌보기 조건 등을 규정함

○ 의결서는 또한 물소, 소, 염소, 양, 말, 토끼, 돼지, 닭, 오리, 타조, 메추라기, 제비 등의 가축 및 동물들을 사육하고 돌보는 경영 사업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공 및 생산, 수산업 식품, 축산물 판매 수산물 판매 및 축산물, 수산물 식품 조사 서비스 경영, 수산물 생산 조건, 수산물 개발, 종자 조사 등의 서비스 경영, 식품 경영 조건 등이라고 함

○ 식물 보호에 관한 생산 조건에 대해 식물 보호 약품 생산기관은 반드시 식물 검역 및 보호 관련 법 61 조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의결서에는 인력, 공장, 식물 및 장비 보관 창고, 품질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식물 보호에 관한 일을 하는 기관 및 개인은 식물 보호 및 검역 법 63 조의 규정과 인력, 장소, 보관 창고 등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 뿐만 아니라, 결정서는 식물 검열을 진행 및 처리 기관은 식물 보호 및 검역 법의 37 조 규정에 상응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조건은 기술 물질 기반에 관한 식물 검역 처리 조건을 따라야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감면 규정

- 관세청은 최근 세금 환급, 세금 면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의 결정서 1780/QĐ-TCHQ 호를 공표함
- 결정서에 따르면 수출입 관세, 가격대 유지세, 지원 방지세, 특별 소비세, 환경 보호세 및 부가가치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함
- 구체적으로 세금 환급 및 면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무부의 통지서 제 38/2015/TT-BTC 호 129 조항에 따른 서류 접수, 서류 분류 작업, 세금 환급 및 면제에 관한 서류 확인, 세금 납부자의 현 주소 확인 후 다음 세금 환급 또는 면제의 과정임
- 그 다음 단계가 세금 환급 또는 면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는 세금 관리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법 21/2012/QH13 호 18 조 1 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시행됨
- 세관은 결산을 진행하고 시스템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동시에, 관세청의 기반 자료들과 서류 보관, 세금처리, 연체금 납부, 벌금 납부에 관련된 처리가 통지서 제 38/2015/TT-BTC 호 49 조 13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 및 진행됨
- 뿐만 아니라, 결정서 제 1780/QĐ-TCHQ 호는 세금 인하 검토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의 결정서임
- 관세청은 보다 편리한 행정수속 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진행 단계를 계획하였다. 세금 환급, 선 면제, 후 검토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검토, 관세청의 검열 중에 손상된 물품, 재수출을 위한 가공 및 생산 계약을 맺고 수입된 장비 및 기계 원료가 갑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세금 인하 검토 등임
- 결정서 1780/QĐ-TCHQ 는 2016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차량 점검 서비스, 교통 운송 서비스 아니다

- 정부가 최근에 발행한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 조건에 관한 결정서 제 63/2016/NĐ-CP 호에 따르면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은 차량에 의한 운송 서비스가 아닌, 차량을 보수하고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량 보수, 점검 서비스 사업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규정함
- 만약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체가 주식회사이면, 차량 점검 서비스 사업 경영자는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인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만이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해당 기업은 반드시 각 차량 점검 서비스 기업 네트워크 계획안에 적합한 기업 설립, 규정에 따른 물질적 기반, 장비, 인력 확보,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 발급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적발될 시, 해당 차량 점검 서비스 업체는 1 개월에서 3 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1. 결정서의 규정에 따른 물질적 자원, 인력, 점검 장비 및 도구, 통신장비, 자료 저장 및 전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임
- 2. 차량 점검 장비 및 도구가 망가진 상황, 또는 규정의 기준에 따른 정확한 점검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임
- 3. 규정,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점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임
- 4. 12 개월 이내에 점검 자격 인증서가 정지된 점검기술자 3 회 이상, 또는 점검 자격 인증서가 회수된 점검기술자가 2 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임
- 5. 점검기술자의 자격 인증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임
- 만약 서류 조작, 자료 조작 등으로 인해 차량 점검 서비스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의 경우, 인증서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수정되거나, 지워진 경우, 그리고



점검 활동 조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6 개월 안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인증서가 회수 조치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6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차량 점검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12 개월 이내에 활동정지 조치를 2 번 이상 확정 받은 경우, 12 개월 이내에 5 회 이상 점검 기술자의 기술 자격 인증서가 정지되거나 3 회 이상 해당 자격 인증서가 회수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회수하거나 영업정지, 해체 결정까지 내려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칸호아성, 2억8천만 달러 이상 수출흑자

○ 칸호아성(tỉnh Khánh Hòa)인민위원회는 금년 6 개월 동안 지역의 80 개 기업이 작년 동기보다 13% 상승한 6 억 7 백만 달러 가치 이상의 상품을 수출했다고 전함

○ 이에 반해 상품수입금액은 하향세로 3 억 2,600 만 달러에 그쳐 수출흑자 2 억 8,100 만 달러를 달성함

○ 수출을 보면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경제구역이 3 억 5,300 만 달러를 달성했고 사기업이 2 억 2,800 만 달러를 달성함

○ 총수출금액이 상승한 품목들은 커피 6,200 만 달러, 선박과 그 부속품 2 억 5,100 만 달러, 목재 및 목제품들 3,400 만 달러, 해산물 1 억 8,600 만 달러 등임

○ 주요 수입 항목은 선박제조, 해산물 가공품에 필요한 원료들과 담배원료, 장비, 기기 등임

○ 금년도 칸호아성의 총 수출금액은 13 억 달러로 이래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수치이며 올해로 5 년 연속 총수출금액이 10 억 달러 이상임

○ 매년 총수입금액은 5 억에서 7 억 5 천만 달러지만 칸호아성은 수년 연속 3~5 억 달러의 수출흑자를 이뤄냄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칸호아성도 행정수속 개선, 생산 사업 환경 개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의 연결,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약속과 시행, 수출입시장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



호치민시 공업단지 평균 임대료 115USD/m²

- Jones Lang LaSale 에 따르면 호치민시가 50 년 임대를 기준 평균 115.2USD/m²으로 공업단지 임대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 연관된 기관들의 2016 년 2 분기 보고에 따르면 동남부 공업단지의 임대요구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남부의 공업, 수출생산단지는 100 여개에 이르며 동나이성(tỉnh Đồng Nai)과 빈중성(tỉnh Bình Dương)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총 공업면적은 36,144ha 이며 이중 24,255ha 는 임대가 가능한 공업면적임
- 시장점유율은 74%로 18,000ha 정도의 토지가 현재 사용 중에 있다. 대부분의 고객층(50~60%)은 봉제, 포장지, 완성철품 등의 제조수출 분야가 차지하고 있음
- 동남부 공업단지의 임대비용은 한 임대주기(50 년까지) 평균 63.3USD/m²이며 호치민시의 임대비용은 115.2USD/m²으로 시장의 선두에 있음
- 비싼가격의 원인은 호치민시의 인프라시설이 발전하면서 상승한 토지가격 때문이다. 주변성들의 공업단지 임대비용은 한 임대주기 평균 40~70USD/m²임
- 평균 공장임대비용은 3USD/m²/월을 기본으로 호치민시, 동나이성, 빈중성의 대표적인 공업단지들은 5USD/m²/월까지 올라감
- 동남부 공업단지시장은 2020 년까지 10,000ha 토지를 추가로 계획할 예정이다. 미래에는 베트남이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FDI 자본을 많이 모으면 공업단지 요구량이 증가하여 임대료가 약간 상승할 수 있음
- 동남부 공업단지는 친환경 공업분야와 친환경 현대기술을 사용하도록 기업들에게 추천하고 있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7.13